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급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2002 홍해작전 개전 4일 앞으로

6월6일 새벽 5시 교회에서 만남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를 주제로 20일간 행군하게 되는 2002홍해작전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각부 조직에서 원활한 운영을 통해 승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만 남았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며 참된 위로가 필요한 때다. 모든 성도가 이번 홍해작전을 통하여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시험의 물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건너 승전하기를 기도한다.

또한 홍해작전 참모부에서는 개전일인 6월6일 첫날 작전을 마치고 난 후 전성도가 함께 교회당 내부를 청소하기로 했다. 우리의 손길로 교회당내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교구간에 화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각 교구별 청소구역은 아래표와 같다.

아시아 로잔대회(ALCOE V)

후원활동 개시

2002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교회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내에 '아시아 로잔대회 후원회'(위원장:김세재 장로)가 지난 4월 발족되어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지난 주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조직 및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아시아지역 20개국에서 120여명의 교계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본 대회는 개회예배, 주제회의 6회와 새벽기도회, 저녁예배, 지역별 전략토의, 방문교육, 폐회예배 등으로 3박4일간 진행되며 첫날 저녁에 당회원들과의 환영만찬이 있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교계지도자 및 후원자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갖는다.

요되는 비용은 전액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대회 후원회는 6월 9일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민박후원신청서를 배포하고 후원자를 모집하며 아울러 동 기간 중 통역 및 기타 봉사할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배포 접수할 예정이다. 민박후원은 숙소편의만 제공하고 일체의 식사는 교회에서 하게 되며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봉사자가 필요한 가정에는 봉사자를 파견할 예정이다. 기간 중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주로 교회 인근에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민박후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통역 및 봉사요원으로 많은 대학,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6월 9일에는 운영위원 및 실행위원 전체회의가 소집되고 민박 및 재정후원 계획, 세부 일정 및 예산을 수립하여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후원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한편, 로잔대회 개최소식을 접한 몇몇 성도들이 이미 특별헌금을 하였고 대회후원회와 실업인선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6월 중 특별헌금을 먼저 실시하고 7월 초에 '아시아 로잔대회 후원의 날'을 선포하고 전교인이 참여하는 특별헌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서울교회 교인들의 집에 민박할 계획이며 본 대회 후원에 소

피택자 교육 시작되다

- 집사 13명 · 권사 40명 선출 -

지난 5월26일(주) 공동의회에서 피택 된 집사 후보 13명과 권사 후보 40명에 대한 피택자 교육이 시작된다. 피택자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 55조에 따라 당회가 주관하는 15주의 교육을 수료하고 오는 11월 24일 교회 설립기념주일에 서울교회 집사 및 권사로 안수를 받고 취임 하게 된다. 교육은 6월8일(토)부터 11월 16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6:10 ~ 7:30 (80분간)까지 606호(피택 집사) 602호(피택 권사)에서 총 15 주간 (7,8월은 방학)실시된다.

이번 공동의회에서 피택 된 후보들의 명단과 사진은 3면에 실려있다.

제1회 서울 강남노회 체육대회

-6월6일 잠실실내체육관-

서울 강남노회(노회장 이종운 목사) 산하 5개 시찰회, 76개 교회가 참가하는 체육대회가 6월6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시찰회와 소속 교회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리는 금번 대회는 노회산하 5개 시찰회가 참가하여 박 터뜨리기, 릴레이, 농구, 족구, 줄다리기와 응원, 참가도를 포함하여 총 7개 종목의 경기를 한다.

우리교회는 대회 전체 안내와 대표선수 선서 및 영동 시찰회 응원을 주관하게 되며 줄다리기 경기에 30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된다. 또한 유년부와 초등부의 어린이들을 위한 경기 및 게임도 본 교회 주관으로 제2보조 경기장에서 갖는다. 성도는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간편한 운동복장으로 교회로 나오거나 8시 30분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오면 된다. 점심식사는 살롬 권사회에서 약간의 김밥을 준비하고 각 교구에서는 교구별 친교를 위하여 가정별로 간식(떡, 빵, 우유 등), 음료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체육대회로 교구별 친목과 단합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 교 구 | 교 구 장 | 청 소 구 역 | 비 고 |
|-----|-------|---------------------------|------------|
| 1 | 이영수 | 2층 본당 | 준비물: 수건 |
| 2 | 전기섭 | 3층 | |
| 3 | 오정수 | 4층 | |
| 4 | 임훈규 | 5층 | |
| 5 | 성준경 | 6층 601,605, 6층 복도, 계단 | |
| 6 | 노승성 | 6층 603, 607, 606 | |
| 7 | 이영기 | 1층 웨스트민스터 홀, 미스바홀 | |
| 8 | 홍성주 | 1층 화장실, 104호, 입구유리, 내부 계단 | |
| 9 | 윤봉준 | 701, 702 계단 왼쪽 | |
| 10 | 최중시 | 704, 706, 7층 복도, 계단 아래 쪽 | |
| 11 | 김사무엘 | 교회주변, 한티공원 | |
| 12 | 김광신 | 8층 만나홀, 비전홀 | |

| 6월 행사 계획 | 6.2(주) 새가족 환영회 | 6.13(목) 지방자치 선거 투표일 |
|----------|---------------------|----------------------------|
| | 교육 위원회 | 6.16(주) 교구 위원회, 교구 찬양(7교구) |
| | 6.3(일) 목회자 세미나 중강 | 6.19(수) 학습세례식 |
| | 6.6(목) 2002 홍해작전 개전 | 6.23(주) 찬양위원회 |
| | 서울강남노회 체육대회 | 6.24(주) 고등부 헌신예배 |
| | 6.7(금) 찬양대원 세미나 | 6.30(주) 2002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
| | 6.9(주) 전도위원회 | |

이사이서 강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장 1 - 12절)



이종운 목사

히브리어에 깃발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데켈'은 열 두 지파가 모일 때 꽃는 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켈'은 흩어진 백성들이 모이기 위한 깃발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적이나 소속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또 하나 '오트'는 표적을 말하는 것으로 깃발을 세워놓고 영도의 한계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본문은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큰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기치를 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1. 여호와를 위한 영광이 깃발을 높이 들어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1절).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은 성도 개인을 위하여 오늘도 쉬 없이 일하십니다.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므로 교회가 높아지고 자랑스러워지고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므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2절).

공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의롭게 한 모습을 이방나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4절).

우리는 본래 버림받은 자입니다. 실상은 꽃이 필 수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험시바'와 '뿔라'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험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관계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리지 아니 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험시바'와 '뿔라'라 하셨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는 '뿔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을 받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이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리"(3절).

왕관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빛나고 자랑스러운 왕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진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흥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 해방이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과 찬송과 환희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드러내기 위하여 영광의 깃발을 두려워 떨면서 높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으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땅에 밟히거나 한다면 결코 험시바나 뿔라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는 깃발을 세우고, 표적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2. 교회와 국가를 위한 파수꾼의 깃발을 세우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제도, 국가제도, 교회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라고 하십니다. 보이게 파수를 하는 것은 사전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러난 파수꾼입니다. 교회를 위한 파수꾼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움을 받은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자 역시 이 민족을 파수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7절).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역시 파수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들이 모두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성도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쉬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새는 대기권을 벗어나면 죽게 됩니다. 기

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 살면 자유가 있을 것 같으나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 성도의 영혼은 대기권을 벗어난 새와 같이 죽게 됩니다. 모든 시간은 기도하기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계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쉬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쉬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봉사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그 시간이 마귀가 틈타는 시간입니다.

파수꾼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것은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있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원수들의 침략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런 문제없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3. 만민의 위한 진군의 깃발을 세우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10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깃발이 필요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깃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표적의 깃발이 세워져야 했고 또한 흩어져있는 이스라엘에는 단결의 깃발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진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흥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 해방이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과 찬송과 환희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전진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방해물은 불신앙, 불의, 불충입니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역사 하십니다. 교회는 힘들어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용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11-12절).

여호와와 영광의 깃발을 세우고, 파수꾼의 깃발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깃발을 세울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그에게 보용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할 때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 † †
2002
홍해작전을 개전하면서

노문환 장로 (홍해작전 참모장)



우리는 오늘 2002 홍해작전의 대장정을 위한 출발선상에 서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앞에서 마치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진퇴유곡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모세와 같이 국가와 민족의 흥해, 교회의 흥해, 가정과 개인의 흥해를 앞에 두고 우리 모두 모여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40:1)"는 말씀을 주제로 6월 6일 새벽부터 25일 까지 홍해작전이 개전되는 동안 온 교회가 하나되어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를 함께 누리

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된 World Cup 국제 축구대회와 6월 13일 실시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가을에 부산에서 개최될 아시안 게임 그리고 12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 등 국제적인 행사와 국가의 중요한 선거를 앞에 두고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요청되어지는 때입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는 홍해작전을 통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2 피택 집사 · 권사>



최양진 임옥균 조철기 이인선 최홍렬 윤성남 이동만 윤운식 이양철



이태원 김찬용 손병석 최치순 이순영 김희진 박태희 최금례



오종례 한성옥 장효옥 김희진 이인숙 이정연 김현숙 진경옥 임인숙



박정섭 이순희 김우숙 김정희 박창희 김정운 전원순 최정순 방승희



김명심 이신정 이옥희 이안순 김찬진 이영자 신현이 김정남 박우주



장영순 이영민 정옥희 오영숙 전복례 이윤정 이영주 김진숙 김복순

월드컵과

ALCOE V



요즘 우리가 가장 자주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아마 월드컵과 16강이란 단어일 것이다. 또한 월드컵이라는 단어는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도 최근에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월드컵이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이며 우리나라의 사상 초유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는 점, 그리고 월드컵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전국민의 관심과 성원의 열기가 뜨겁다. 거기에 더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경기가 있는 날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정서가 팽배하고 정치권에서는 월드컵 대회기간 중에는 일체의 정쟁을 자제한다고 공식 선언을 할 정도이니 가히 대한민국 전체가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월드컵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를 이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결코 이를 폄하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함은 아니다.

오히려 오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교회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 (ALCOE V: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를 이제 80여일 앞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월드컵의 열기에 못지 않은 ALCOE V에 대한 우리 서울교회 전체의 뜨거운 열기가 절실함을 제안코자 함이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의 시대는 서서히 퇴색하고 그 무게

와 중심이 제3세계로 옮겨가고 있으며, 제3세계 기독교 가운데 특히 한국교회는 영적, 인적, 물질 자원 면에서 높은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에 걸맞게 한국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여 세계선교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 양적으로도 선교의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효과적인 선교라는 측면에서는 그간 물질, 인적 선교자원의 많은 손실과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며 일부 선교현장에서의 과당 경쟁과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선교지에서 홀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선교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위주의 선교에 대한 재고와 함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반해 우리 서울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미 교회 초창기부터 부설기관인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김치세미나를 통하여 매년 다른 문화권의 영향력 있는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영적 재충전과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자국의 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여 문화와 언어가 다른 선교사의 파송에 비해 단기간의 훈련으로도 커다란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김치세미나는 1996년 로잔의 공인 기구로서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 서울교회의 김치세미나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선교전략임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우리 서울교회가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 (ALCOE V)를 유치하여 이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로잔후원회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이래 120명이라는 이처럼 많은 아시아의 교계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들은 나홀동안 아시아 지역교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을 위한 공동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는 아시아 선교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 (ALCOE V)에 우리 서울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치의 실수 없이 이번 행사를 치루어 내기 위한 우리의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교회의 많은 사업들은 교인들의 철저한 자원 봉사로 치루어졌으며, 이러한 교인들의 헌신은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공사업의 초석이 되어 왔다.

이번 행사는 이런 정도의 대규모 국제행사라면 엄청난 물량과 시설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일반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의 참여 경비는 우리교인들의 특별헌금으로 충당되며 숙박 역시 교인들의 민박후원으로, 아울러 참석자들의 입출국 절차, 모든 순서의 진행과 안내, 식사준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 교인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 없이는 이번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ALCOE V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후원 그리고 헌신의 열기를 내뿜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열기 속에서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 (ALCOE V)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김시환(편집부)

인증패를 받고 감사드립니다.

최규석 목사 (광명교회)



경기도 시흥시 광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규석 목사입니다.

본인은 최근 한국교회갱신연구원으로부터 ten years round table members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지난 학기에 받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달 4월 29일에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한번도 결강하지 않으시고 강의에 임해주시는 이종운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첫 학기부터 21학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경 강해와 2부 강사님들의 강의는 다른 세미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하면서도 높은 차별 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복음전파의 목적은 하나이나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

의 바른 이해와 시대의 정확한 진단은 목회자로서 꼭 갖추어야 할 필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길이 목회자의 성숙과 자질에 달려있다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위에 무궁한 발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계속 정진 되어야 합니다. 기존 목회자로서 훌륭한 배움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단 신 †

- 스테반회 기도회 - 6월3일 저녁 7시 501호
- 5월등록 새가족 환영회 - 오늘 찬양예배시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일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일기도회 | 오후 9시 30분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흥해작전에 참여하여 승전 할 수 있도록
2. 월드컵 성공과 지자체 선거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이종운 목사는 당회원들과 함께 새로 청빙될 부목사 면접을 6월7일(금) 갖는다.
- 이전개업: 최명수 집사, 강재순 집사가정(1교구)
현대교육방송 733-1270-1
- 이사: 송인권집사, 윤숙지집사(11교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경남A. 1206호 전화 02-562-6605

- ⊙ 금주의 식사제공: 최양진 집사, 강윤숙 집사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 목회자세미나 후원: 한남기독교실업인회 (백래향 장로 이미순 권사떡 제공)
- ⊙ 목회자세미나 간식 제공: 정인주 김경애 집사, 이영기 장로 이영숙 권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 (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 (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